

분당 여파 호남권 경쟁률 급락... 19대 대비 신청자 '반토막'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7일 오전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교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합류 이상돈 "햇볕정책은 실패"

안철수·김한길 등과 4인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7일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그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어느 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개혁에 대한 이론과 실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분"이라며 이 교수의 영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 선대위는 김한길 상임 위원장을 필두로 안철수·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확대됐다.

이 교수는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며, 2014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추진됐으나 친노계 반발에 좌절됐다. 그는 이달 초 국민의당 창당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정동영 전 의원 영입설과 당의 대북 노선에 대해 정세성 문제를 제기하며 합류를 미뤘었다.

이 교수는 "정동영 영입설에 불만을 제기하고 당 노선을 비판하다가 전격 합류한 배경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

할 것으로 믿었다. 우려했던 몇 가지 부분이 해소됐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다.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선언 실패하고, 김영삼 정부 때 제네바합의 실패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 실패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비핵개방 실패했다"며 "국민의당은 그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안 대표가 나서서 "어떤 정부 정책도 100% 성공이나 100% 실패는 없다. 공과가 있다"며 "핵 문제에 대해 성과를 얻지 못한 부분을 냉정히 파악해서 성공한 부분은 계승하고 실패한 부분은 반복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포용정책이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인도적 포용정책과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며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첫날부터 이처럼 대북정책 노선을 두고서 기존 야권과 다른 발언을 쏟아냄에 따라 정세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총선 후보 신청 마감

국민의당 분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20대 총선 후보 공천 신청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반 토막'이 됐다.

더민주의 지난 15~16일 4·13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371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발표했다.

이는 713명이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시절에 비해 신청자가 342명, 48.0% 감소한 결과다. 특히 '공천 = 당선' 등식이 성립하던 호남(광주·전남·전북)의 경쟁률은 1.97대 1로, 지난 19대의 4대 1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6명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건너간 광주에는 8석에 13명이 등록해 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전북은 각각 23명씩이 신청, 똑같이 2.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더민주에 대한 지역 민심 이반과 국민의당 분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더민주의 공천심사에 착수하지만, 이제부터 '현역 의원 20% 몰갈이'와 전략공천 문제 등 복잡한 공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에 직면했다. 더민주의 광주에 6명의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포진해 있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 광주 공천을 가장 먼저 시작할 방침이다.

공천신청 결과를 보면, 북구갑에는 강기정 의원이 혼자 신청서를 냈고 서구갑에는 현역인 박해자 의원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이 신청했다.

영입인사인 오기형 변호사와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광주 동구에 공천을 신청했

371명... 전국 평균 경쟁률 1.51대 1

광주 북구갑 강기정 나홀로 신청

양향자 결국 광주에 공천 가능성

전략공천 10여곳 이달말 명단 발표

다. 북구을은 이남재·이형석 2명이, 광산갑에는 이용빈 광주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과 임한필·허문수 예비후보 3명이, 광산을에는 이용섭·김중구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광주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향자 전 삼전전자 상무는 당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을 출마를 가정한 여론 조사를 돌리는 등 수도권과 광주 양쪽 투임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광주로 낙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공천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는 이상갑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을 대항마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직 지역구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사들의 배치도 관심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 전략공천 대상지역 10여 곳을 선정, 이달 말쯤 1차 후보군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영입 대상자들의 지역구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후보 선

정자들의 명단 발표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분할되거나 신설이 예상되는 지역구나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될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추가 공모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석의 의석이 있는 세종시에 3명이 공천을 신청, 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과 전북이 2.09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52석에 105명이 신청한 경기 지역이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48석에 84명이 신청해 1.75대 1, 인천은 12석에 16명이 신청해 1.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은 18석에 19명이 지원, 1.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대전 2대 1, 울산 1.17대 1, 강원 1.11대 1, 충북 1.75대 1, 충남 1.5대 1, 제주 2대 1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12석에 3명만 지원해 0.2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은 15석에 6명이 지원해 0.4대 1, 경남은 16석에 12명이 지원해 0.75대 1로 전체 의석수에 미달했다.

더민주의 17일부터 지역구 실사 등 공천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2일부터 공천 신청자들에게 대한 면접에 나선다. 또 다음달 12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첫 당내 경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 공모 결과, 246개 지역구에 829명이 공천 도전을 내 3.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20일부터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고 29일부터 자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22일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리아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3/29,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가가세 고급 팬션 온천여행 4일 ₩49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 | | | |
|-----|---|-----------------|-----------------|
| 신속 | 무안-장가계 | 3박5일 ₩ 699,000 | 4박6일 ₩ 699,000 |
| |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가이드&기사(50%), 단체비(₩35,000) | | |
| 품격 | 무안-장가계 | 3박5일 ₩1,050,000 | 4박6일 ₩1,090,000 |
| |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 | |
| 고품격 | 무안-장가계 | 3박5일 ₩1,150,000 | 4박6일 ₩1,190,000 |
| |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 | |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
|----------------------------|----------|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 ※ 화요일 출발 |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 ※ 화요일 출발 |
| ▶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 ※ 금요일 출발 |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저,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저,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무안-상해, 황산, 항주 특가!!

| |
|---|
| ▶ 3/30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4일 ₩599,000 |
| ▶ 3/28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5일 ₩649,000 |

포함 : 특전 | 1. 전일정 조속출발사유
2. 현지 특별사유 [동파유, 사천요리, 삼경살등 한식]
3. 발마사지포함 4. 항주서호유람선, 송상가무쇼 포함
5. 기사/가이드 포함

불포함 : 매니저 및 기타 개인비용, 중국단체비 (₩35,000)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틀더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터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매일, 기사/가이드/기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따뜻한 눈길... 어미개의 모성 사랑 못지않네

**김은영의
'그림 생각'**

(144) 반려견

바이츠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자녀들의 성장 스토리 붐에 이어 먹방/육방 유행과 함께 최근엔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이 대세다. 반려견에게 식사와 배변 훈련을 시키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가 나오는 '개밥 주는 남자'를 시청하면서 점차 반려동물 사육이 유행할 것 같다는 눈 밝은 예측도 해본다.

강아지에 대한 관심은 얼마 전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 키우면서부터이다. 인형처럼 귀엽고 작은 강아지도 무서워 도망 다니던 때가 언제인가 싶게 생후 6개월 만에 대견의 눈빛을 보인 우리 개가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내겐 큰 전지이다.

오랜 세월 인간과 유대를 가져온 개의 이미지는 미술 작품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선사시대 벽화에서 모네 르누와르 피카소 등 거장들의 화폭, 21세기 제프 쿤스의 조각까지 개의 이미지는 집을 지키거나 반려동물로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우리 미술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가장 압권은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증손인 문인화가 이암(1507~1566)의 작품 '어미개와 강아지'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이암 작 '어미개와 강아지'

어미젖을 빨고 있는 강아지와 그 품을 파고 드는 또 한 마리, 어미 개의 등에 기대어 잠든 강아지와 그들을 바라보는 어미 개의 어질고 따뜻한 눈길은 보는 이를 절로 미소 짓게 한다. 어미 개의 모습에서 사람에게보다 더한 모성의 위대함이 전해진다.

조선시대 회화에 등장한 개는 흔히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많다. 개의 한자어인 술(戌)과 지킬 수(戌), 나무 수(樹)와도 음이 같아 함께 쓰였다고 하며 나무 밑에 개를 그림으로써 도둑을 막는 힘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화가 이암은 그래도 나무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나무의 묘사가 어미개와 강아지의 묘사에 비해 밀도가 떨어져 보인다.